



양계업의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제의

오 세 정
<건대 축대교수>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양계 산업 각분야가 모두 안정된 호경기를 이루었으나 사료가격의 폭등과 물량수급의 불균형 및 배합 사료의 품질저하로 양계산업은 다른 가축에 비교하여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9~12월까지가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된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때도 과거와 같은 안일한 생각과 외국에만 의존하던 사료수급대책에 대하여도 시급한 전환기라 생각되며 이러한 것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 뿐이라고 생각된다.

세계인구의 증가는 식량의 수요증가를 가져오게되며 경제성장으로 소득증대는 단백질 식품 특히 육류, 제란, 우유등 축산물의 수요는 날로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곡물의 수요는 급증되는 것이며 곡물을 그대로 사람이 먹느냐? 가축에 먹여 고기 제란 우유로 만들어 먹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머지 않아 나오게 된다.

當面한 飼料展望으로 볼때

미국에서는 그간 농산물(곡물)이 생산과잉되어 외국에다 무상공급, 생산조절을 위하여 20%의 경작지 휴경조치, 판매확대등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었으나

- 1) 작년도 이상기후로 생산량감소
- 2) 국내수요가 년간 4%씩 증가
- 3) 국외수출확대가 매년 15%씩 증대
- 4) 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한 물건확보
- 5) 일부 국가의 수요급증과 매점매석 행위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휴경 제한조치를 철폐하고 자유로히 생산토록 촉구하므로써 금년도 가경지가 확대되어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 확정시되나 수확후 결과를 보아야 알리며 예상대로 풍작이 되었을 경우 다소 곡물시세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추측은 되나 과거와 같은 60~70월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또한 미 농무성 발표에 의하면 수요증대로 인한 매년 이 월양의 격감으로 75년도에는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는 당무자의 말이다.

이렇게 볼때 앞으로 우리나라 사료실정과 축산업 특히 양계업분야는 큰 충격과 압당한 험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은 있으나 그런 요행이나 우연만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며 또한 정부에만 촉구, 의존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 스스로가 작성하고 자각하며 서로 협력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양계업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를 완수하며,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스스로가 활일을 열거하면

1. 생산조절이 되어야 한다.

우선 수적인 감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1) 부화업자는 입란을 스스로 중지하고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며

2) 사육자도 요행의 전망으로 입추를 하지 말고 규모의 축소로 내적 충실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능력이 낮은 노계는 과감히 도태하여 사료의 손실을 막자.

이러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도입사료의 절감, 외화의 유출감소, 물량상 수급의 차질을 가져 오지 않게되며 생산물의 적정가격의 유지로 영세한 양계업자의 생업의 유지 나가서는 건전한 사업으로 공존과 발전을 기하게 된다.

2. 정확한 통계 조사 보고

정확한 통계는 정책수립에 기초가 될뿐 아니라 자기사업의 경영상 지침이 되며 전망과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게 됨으로 자신의 사업 나가서는 건전한 양계업발전을 위하여 정확한 보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1) 부화장 등록과 부화기대수
- 2) 초생추 생산보고(월별, 품종 또는 종류별)
- 3) 종계확보현황
- 4) 양계기반조사 협력보고
- 5) 경영일지기록(종계, 채란계, 육계)
- 6) 월별 사육수 파악
- 7) 생산물의 시세조사

이러한 것이 정확히 보고, 조사, 집계 공개됨으로서 안정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유리한 경영을 하게 된다.

3. 종계 등록 실시와 품질보증

닭의 자질이 많이 개량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무질서한 교잡종의 생산(왕병아리), 혈통 또는 계통이 성립되지 않은 종계를 가지고 부화하는 자가 있다. 이는 부화업자 자신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나가서는 사육자의 능력과 수익성, 사료절감을 위하여 금하여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종계등록사업이 꼭 실시되어야 되고 사육자는 등록된 부화장에서, 등록된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확인 구입토록 되어야 한다.

즉 값싼 병아리를 사육하는것은 오히려 능력의 저하로 손해를 보게된다.

그럼으로 능력이 우수한 것을 비싸다 하더라도 사육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

병아리값의 20~50원 차는 산란수로 2~4개정

도의 차밖에 되지 않으며 육계에 있어서는 100~150g의 체중차에 해당된다.

뿐만이 아니고 사료효율, 이용성, 강건성, 경제적수명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병아리 선택에 더욱 사육자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지역별로 협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지식과 행동으로는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서로 지역별로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끼리 협력하여 공동구입, 공동판매, 공동방역, 시설활용 기술의 개발, 공제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주장 관철할 수 있고 또한 보호되며 적정가격의 유지, 생산비절약으로 경영상 유리하다.

우리의 살아갈 길은 오직 서로 협력과 조직에 의한 경영이라 생략되며 미국은 그 무엇보다도 생산자 단체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수직적 통합에 의한 계열화생산하는 대기업의 경영은 유리하나 영세한 업자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공존과 공익을 위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즉 양계협회를 구성하여 종적 황적 유대를 강화하며 앞으로 탁철 난관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살길은 협력과 협조 이해로 이룬 조직체계에 의한 경영체제라는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여기에는 서로의 이해와 신의 진실이 앞서야한다고 본다.

5. 국내사료자원의 활용성 증대와 개발의 촉구는 시급하다.

서언에서 언급한바 있으나 도입사료의 가격상승과 원료난이 앞으로 계속 문제점이 될것이니 하루속히 국내자급화방향으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한다.

즉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와 생산증대, 양질의 녹사료 이용, 해안개발, 단백사료개발과 생산증대, 무기물사료(패분, 골분)의 생산확대등을 기하는 동시에 품질향상과 가공처리의 효율화로 이용성 증대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앞장 서야

한다.

이번 계기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건전한 축산 발전의 효시가 되며 기반조성이 되길 바란다.

여기에는 도입원료 가격의 변동 차액을 적립 또는 1%를 가산 적립하여 국내자원 개발과 활용증대, 생산기반조성금으로 사용토록 제안하는 바이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창의와 지원이 앞서야되고 이에 우리는 현실 당면한 면전의 문제해결과 이해만을 생각지 말고 먼장래를 위하여 호응과 협력이 있어야한다.

6. 사료 검사제도의 개혁이 촉구된다.

- 1) 공정규격의 현실화와 개정
- 2) 중요성분의 보완과 분석강화
- 3) 검사제도의 철저와 방법의개선
- 4) 사양시험에의한 비교 검사제도실시
- 5) 사료공장의 환경위생의 철저와 시설기준의 개정을촉구

7. 사료 유통거래의 명랑화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1) 외상거래의 지양과 도의양양
- 2) 중간상인 개입에의한 총판권, 대리점제 지양으로 중간이익배제
- 3) 대화와 진실에의한 품질관리및공급
- 4) 주문배합제도 신설
- 5) 양축가와 사료공장의 반성을 촉구하며 상호공정과 공익을 도모토록

8. 저단백질사료에 의한 사양을 하자.

과거 몇년간 지나친 단백질과잉과 낭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없다.

현실에 최소한의 함량과 아미노산(라이신, 메치오닌)의 첨가에 의한 경제성 사료의 공급으로 수익성을 증대토록 하자.

고단백 고열량사료가 능력의 향상을 기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지나친 과잉은 열량의 손실과 사료의 낭비를 가져와 경영적으로 불리하다. 그렇다고 너무나 사양기준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이고 경제성의 사료를 공급하여 소득의 증대를 기하며 사료를 절약하자는 계의를 하는 것이다.

9. 시설의 기계화가 시급하다.

- 1) 인건비 지출이 절감
- 2) 사육환경의 안정화
- 3) 방역상 유리
- 4) 관리의 균일화와 정확성부여
- 5) 능력의 극대
- 6) 세밀한 관찰을 기하게 한다.
- 7) 인력관리의 용이

10. 관리의 개선점

- 1) 환기의 철저
 - 2) 안정한 생활조건을 조성
 - 3) 밀집 밀사를 방지
 - 4) 울인 울아웃제도의 철저한 실시
 - 5) 급변하는 관리는 삼가하도록
 - 6) 사료품질의 일관성 있는 공급
 - 7) 점등관리의 철저한 수칙원칙을 알고 실사하며 관리토록 할것
 - 8) 부리자르기는 3~4주령 (25일령, 내외)에 꼭 실시할 것
 - 9) 보사료는 반드시 공급토록
 - 10) 중 대추시 방사토록 할것
 - 11) 조숙산란하지 않도록 사료와 일조시간을 조절하여 23~25주에 산란을 시작하도록 할것.
 - 12) 예방접종은 규정된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접종전후 항생제와 영양제를 첨가 급여토록 할것.
 - 13) 대군수용과 환기불량한 계사 특히 여름철에 공기분무소독을 실시할것
 - 14) 계사내에 먼지가 발생, 보이지 않도록 관리할것.
 - 15) 계사가 너무 밝지 않도록 할것
 - 16) 위생의 철저로 질병의 침입을 방지
- ① 사료공장
 - ② 부화장
 - ③ 중간상인의 출입금지
 - ④ 매개체의 침입방지(곤충, 축견)
 - ⑥ 공기전파

- ⑥ 오물 및 폐제처리
- ⑦ 밀집시설의 방지
- ⑧ 기구기계의 교류
- ⑨ 소독의 철저

17) 파란방지

- ① 난각이 튼튼한 품종의 선택
- ② 영양소의 균형된 공급과 이용의 효율화
- ③ 안정된 환경의 조성
- ④ 산란시설과 기구의 조작성 시정
- ⑤ 취급과 보관에 주의(숙련과 침착성고취)
- ⑥ 스트레스의 방지(방서, 사료급변, 환경)
- ⑦ 부리를 자를것
- ⑧ 특란난좌의 제작
- ⑨ 운반시 안전성 유지

11. 계획성 있고 경영분석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하자.

- 1) 년간운영계획표, 월중행사표, 주간실시계획표를 항시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 놓을것.
- 2) 매일 산란을 도태율, 파란율 사료섭취량등을 표시하는 그래프를 그릴것.
- 3) 금전출납부와 계정별로 분류장부기입을 할것.
- 4) 관리자의 성과 업적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신상 필벌의 철저한 실시

12. 유통과정의 개혁은 우리의 힘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 1) 계통출하에 의한 공판제 실시
- 2) 품질의 철저한 검사
- 3) 등급의 통일화와 중량판매
- 4) 상품가치의 향상

- 5) 저장 보관관리의 개선
- 6) 유통과정의 단순화
- 7) 저장시설의 확장

13. 소비확대의 촉진과 강화

제란과 닭고기의 영양적가치의 우위성을 인식 보급시키는데 우리 스스로가 앞장 서야 하며 특히 타 육류나 식품으로 대치되어 침범당하지 않코 오히려 확대시키는데 노력되어야 한다.

- 1) 영양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성 인식 홍보
- 2) 상품가치의 향상
- 3) 요리강습회와 요리의 다각화
- 4) 우리스스로가 많이 이용에 선도적역할
- 5) 해체 부분판매
- 6) 저온, 위생 판매

이상 여러가지로 제안하였으나 누구에게 책임 을 전가 시키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하며, 우리의 힘을 모아서 협력 타개하 여야 한다.

앞으로 탁월 사료값의 앙등, 사료품질의 변화 물량수급에 차질, 생산원가의 상승 등 여러가지 경영상 애로가 많을 줄 안다.

여기에는 굳은 신념과 인내심을 가지고 창 의와 연구 개발하며 실천 개선해나가는 경영을 하 며 서로 협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양계업계의 안정된 발전과 번영의 계기가되길 바라며 이번 난국이 무사히 지나가는 동시 국산 화 자급화에 의한 양계기반조성이 이루어 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서로 협력, 협동, 단결 만이 우리의 살길이며 우리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힘을 갖자.

정확한 초생추 출하보고

양계업이 안정된다.